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전망과 학교상담의 방향

Outlook of Changes in Future Vocations and Direction of School Counseling

김봉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Bong-whan Kim*

Division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요약]

학교상담은 우리나라 상담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담이 시작된 곳은 학교 장면이다.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미래에 제대로 기능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상담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상담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그들 삶을 잘 준비하도록 조력하는 일도 맡고 있다. 이러한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변화를 조망하고 변화된 미래에 잘 적응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에 맞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해 가는 환경에서 학교상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미래사회의 변화 전망,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 전망, 미래사회의 인재상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준비를 조력하기 위하여 학교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상담전문가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Abstract]

Counseling in Korea has developed based on school counseling. School is the first place where counseling started in Korea. Young people in school live today preparing for the future. In order to make them be prepared so that they can function themselves properly in the future, roles of school counselors are very important. School counselors also take the role to help the young students prepare their life well. For the purpose, it is needed to find out what capabilities are required to make them prospect the changes in the future and adopt themselves well to the changing future.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how school counseling reacts to the changing environment. First of all, it discusses outlook of changes in future society and future vocations, and required model human resources in future society. Then, it identifies how school counseling should be made to help the preparation and what kind of role it should take for the purpose.

Key Words: School counseling, Future Society, Future Vocations, Roles of School Counselors

<http://dx.doi.org/10.14702/JPEE.2017.17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28 October 2017; **Revised** 14 November 2017

Accepted 17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E-mail: bongwhan@sookmyung.ac.kr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상담의 시작과 발달은 학교장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 성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미래에 제대로 기능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상담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상담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들이 미래의 삶을 준비하도록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일도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변화를 조망하고, 변화된 미래에 잘 적응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17년 한국 직업 전망으로 본 향후 직업 세계 변화 7대 트렌드를 보면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직업전망 보도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직업 전망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직 고용 증가,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를 중심으로 하는 인력의 재편 가속화, 기계화와 자동화로 대체 가능한 직종의 고용 감소,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의료 및 복지 관련 직종의 고용 증가, 경제 성장과 글로벌화에 따른 사업 서비스 전문직의 고용 증가, 안전 의식 강화로 인한 안전 관련 직종의 고용 증가, 기존 업무 ICT스킬이 융합된 업무 증가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미래사회의 변화전망은 어떠한가, 둘째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 전망은 어떠한가, 셋째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넷째 학교상담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 등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A. 미래사회의 변화 전망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통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 미래사회에는 더욱 자유로워질 것이다. 24시간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게 되면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없이 가족과 친지들과 접촉할 수 있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다. 원하는 정보를 즉시 구하여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행동이 자유로워진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려면 무슨 영화가 어느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지 물

라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곧바로 원하는 정보를 얻어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요한 정보는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7].

김창환 등[2]은 향후 10년의 교육비전과 전략이라는 연구에서 2020년 한국 사회의 미래를 다음의 몇 가지로 전망하였다.

첫째, 한국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인구의 변화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는 추세이고, 이는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지만, 인구 규모가 감소되면서 교육의 질을 강화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둘째, 미래학자들은 미래 사회의 메가트렌드를 글로벌화,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심화, 과학 및 정보기술 발달의 가속화, 지식기반경제의 심화 등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 요인은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이다. ‘사회양극화 및 불평등의 심화’문제는 2020년 우리 사회에서 교육복지, 교육의 형평성이 중요 가치가 될 것임을 의미하며, 소외계층·지역에 나눔을 위한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 문제는 2020년 우리 사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능력있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를 기초로 2020년 예상되는 한국 사회 주요 교육 이슈는 다음과 같다. 인구변화 트렌드와 관련하여 유아교육의 질 제고, 인구의 질 강화, 대학 경쟁력 강화, 노동력의 질 강화, 평생교육과 노인교육 활성화, 교육여건 개선, 교육인프라 수급 불균형, 대학 구조조정 등이 교육적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변화 트렌드와 관련하여 국제이해교육, 교육 분야 국제교류협력 확대, 교육시장 개방, 국제전문가 양성(선진국 편중 극복), 고급 인재 유치, 다문화 교육, 사회적 자본 축적(개방성, 포용성 등), 통일 역량 교육, 사회통합 교육 등이 교육적 이슈로 제기될 전망이다. 경제변화 트렌드와 관련하여,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직업 진로교육 강화, 소프트 파워 등이 교육적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 사회변화 트렌드와 관련하여, 교육 복지, 교육양극화, 교육 불평등 및 형평성, 공생발전, 삶의 질, 미래사회의 핵심역량 개발, 사회의 질을 높이는 교육, 갈등 극복을 위한 평화교육 등이 교육적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 과학기술 변화 트렌드와 관련하여, 교육 4.0(교육패러다임의 변화), 학습사회, 집단지성과 학습생태계 변화, 이러닝 활성화, 스마트 러닝 등이 교육적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치관 변

화 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치관 교육, 인성교육, 청소년 시민 의식 교육 등이 교육적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2].

B.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 전망

1) 미래의 직업트렌드

미래에는 멀티플레이어를 필요로 한다. 이미 미국은 대학생 90%가 2개 이상의 전공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전공,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은 이미 늘어나고 있다. 한 가지 분야의 지식만이 아니라 몇 가지 분야의 전문지식을 융합해야 하는 분야가 늘고 있고, 이러한 미래의 변화속도에 맞추어 그 준비를 위해 다양한 전공으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13]. 미래사회는 산업시대의 제조업이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88%가 서비스산업 종사자이고, 한국은 80%가 서비스산업 종사자로, 제조업은 10년 내에 2%로 감소하고 아프리카 등지로 옮겨가거나 자동화 기계화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나노 어셈블리의 출현과 더불어 제조업은 나노자동생산시대로 가기 때문에 더욱 축소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멀티플레이어, 다전공,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 및 창의성, 정보, 지식, 사고,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인간노동력이 2020년이 되면 대부분 로봇이나 기계화로 대체되어 제조업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간관리 산업이 최대의 산업이 될 전망이다.

사실, 미래의 직업세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현재의 유망직종이 미래에는 소멸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정부는 현존하는 직업의 80%가 10년 내에 사라지거나 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각 국의 교육기관은 엄청난 속도로 미래산업에 관한 연구와 미래직업에 따른 교육과정 변화를 펴하고 있다. 포브스가 정한 미래의 10대 신부상직종, 소멸직종을 박영숙[6]이 정리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6].

먼저 신부상직종으로는 유전자 검색인(Gene screener), 전염병 방제사(Quarantine enforcer), 홍수처리 전문가(Drowned city specialist), 원격이동전문가(Teleport specialist), 로봇 메카닉(Robot mechanics), 동물가디언(Animal guardian), 홀로그래퍼(Holograper), 비행선 파일럿(Dirigible Pilot), 우주관광 가이드(Space tour guide), 수소연료 스테이션 매니저 등이 있다.

그리고 소멸 직종으로 꼽힌 것에는 슈퍼마켓 점원(cashier), 필름 현상자, 노동조합리더, 백과사전 저자, 광산노동자, 건설노동자, 전투기조종사, 콜 센터 직원, 석유시추기술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미래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는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조직, 더 나아가 인재를 양성

해야 하는 국가 차원에서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진로교육은 미래의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미래의 직업 생활

장주희[12]는 2030 미래사회 및 직업생활의 변화와 교육적 접근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미래의 직업생활을 ‘개인의 일과 관련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직업, 고용 및 근무형태, 일터의 조직 형태, 커리어의 유형, 삶에서 일이 가지는 가치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보고, 직업트렌드, 조직과 근무형태, 커리어의 유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미래의 직업생활의 모습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2030년의 직업트렌드로서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욕구를 디자인에 접목한 감성디자인의 확산을 꼽았다. 다음으로 해외 인재들과의 취업 경쟁 심화, 의료 및 복지 관련 직업 종사자의 증가 등을 꼽았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홈스쿨, 가상학교의 확산으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 역할보다는 학습 코디네이터, 고민 상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여성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떠오름에 따라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직업들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개인관리 직업이 발달할 것이라는 전망과도 연결되는데, 이러한 개인관리 직업으로는 개인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물건을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공간 활용과 환경의 개선을 도와주는 정리수납컨설턴트, 고객의 체중감소와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비만관리컨설턴트, 피부와 몸매 등 몸 전체를 관리해주는 에스테티션 등을 들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만나 직접 거래하면서 중간상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으며, 의사나 변호사 등 전통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업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영향력이 퇴조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조직과 근무형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하는 경우가 더 빈번해 지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조직문화도 변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유연근무의 확산으로 오히려 노동시간이 증가할 것이며, 프로젝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이동하는 직업인이 늘 것이라고 예상하였다[12].

한편, 새로운 기술력도 미래 사회에 각광받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5년 떠오르는 10대 신기술’을 이승택[11]이 정리한 것을 살펴보면 생각만으로 조작되는 컴퓨터 인터페이스, 바닷물 담수화 과정에서 금속 추출, 초경량 자동차, 그리드 방식 에너지 저장, 입는 전자 제품, 나노와이

어 리튬 이온 배터리, 스크린이 필요없는 3차원 디스플레이, 인체 미생물 치료법, RNA 기초 치료법,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예측 모델 이용 등이 포함된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 보면, 어떤 분야로 진로의 방향을 정하고 공부를 해야 할 지 생각해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새로운 직업전망에 대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관련 분야의 책과 신문, 잡지 등을 꾸준히 읽어 보고 미래의 직업사회를 보는 안목을 키우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미래를 더 많이 고민해 본 사람일수록 진로 선택에 실패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3) 미래의 조직 및 근무형태의 변화

조직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미래형 조직형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미래에도 조직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이 다수일 것인가의 여부와는 별개로 조직은 직업생활의 미래 모습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미래형 조직형태의 밑그림을 제시함에 있어 미래에 예상되는 산업의 변화,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고용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도래로 직원들 간에 자료 공유가 용이해짐에 따라 미래의 조직은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즉, 몇 군데에 거점을 두고 조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는 네트워크 조직이 일반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평적인 협력을 이루는 관계망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조직에서는, 특화된 기술을 가진 독립된 기업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제품이나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문성을 공급하여 효율성을 꾀한다[8].

미래에는 정규직의 비중이 아주 적은 클로버 형태의 조직 형태를 흔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클로버 조직’이라고도 불리는 삼엽조직은 소수의 핵심인력, 다수의 시간제근로자, 하도급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9], 전문가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조직의 핵심 업무를 맡기고, 비핵심적 기능은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활용한다[4]. 즉, 미래의 조직은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구성원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같은 수평적 구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미래에는 개인이 더욱더 여러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갖추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기업은 인력구성의 변화, 신축적인 조직구조, 조직 내 개인의 자율성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로의 변화가 예상된다[12].

앞으로는 정해진 사무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기업은 각종 경비를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3]. 획일화되고 경직된 대규모의 고용형태는 다양하고 유연한 중소기업의 고용형태로 변화하고 있다[14].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계약직, 업무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일하는 프리랜서들, 일이 있으면 직종과 국경을 넘기를 마다하지 않는 직업 유목민 잡 노마드, 예전의 경험을 살려 은퇴 후 사회적 일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미래의 직업인은 모자이크와 같은 모습을 띠 것이다[12].

4) 미래의 직업세계에서의 경력유형의 변화

과거에는 한 개인의 경력이란 조직의 경계 안에서 승진의 사다리를 통해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면 미래에는 더 다양한 경력유형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 조직 내에서의 커리어가 아니라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커리어의 복잡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정보화시대의 신기술 혁명에 따라 지식의 수명이 단축 되는 한편, 산업이 고도화하고 융복합화하는 흐름이 있다[12].

경력유형의 대표적인 예로 무경계 경력(boundaryless career)과 프로테우스식 경력(protean career)이 있다. 무경계 경력은 조직 내 경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력을 의미한다[15]. 프로테우스식 경력은 조직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 주도되며, 개인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이 만들어지는 경력을 의미한다[17]. 여러 기업을 넘나드는 무경계 경력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특정 조직에서의 노하우보다도 산업의 노하우가 더 중요하고, 현재의 고용주보다는 외부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5]. 고소득과 같은 외적 성공보다는 자아실현이나 심리적 만족을 성공으로 본다. 직업세계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미래에는 심리적 만족을 줄 수 있는 경력을 찾아다니는 프로테우스식 경력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12].

C. 미래사회의 인재상

김창환 등[2]은 문헌분석과 전문가 협의회 및 토론회를 거쳐 다음과 같은 7가지 인재상을 제시하였다.

첫째, 글로벌 창의인재이다. 이는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말한다. 둘째, 글로벌 시민이다.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을 소유하고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역

량을 갖춘 시민을 말한다. 셋째, 전문가형 인재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며 사회 발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형 인재이다. 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다른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너럴리스트인 동시에 스페셜리스트를 말한다. 다섯째, 통섭·융합형 인재이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기술 역량이 결합된 인재를 말한다. 여섯째, 도덕적 품성과 시민성을 갖춘 인간이다. 도덕성과 시민성은 미래 사회에서도 중요한 인간의 자질이라고 판단하였다. 일곱째,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이다. OECD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 즉 고차적 사고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을 갖춘 인간을 말한다.

또한, 이무근[10]은 미래 변화가 한국인에게 요구하는 인재상은 교양인, 직업인, 국제인이라고 하였다.

첫째, 교양인으로서 어떤 사회 변화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한 자아 정체감과 존중감,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생애 단계별로 진로를 설계하여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하고, 항상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연과 생명을 아끼고 자원을 절약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을 유지·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직업에 관한 기초능력을 갖추고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수집·가공·창출·활용·관리할 수 있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지닌 장인 수준의 전문인이어야 한다.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융·복합형 인재로서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국제인으로서 다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품격을 갖추어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살며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구촌 어디서나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지고 남북 관계에 대처하며 통일에 대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곽병선[1]은 미래에는 상황주도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상황주도역량의 특징을 지닌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자유인에 대한 의지를 지닌 사람이다. 자유인은 누구,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열어가고 자신에게 책임지는 사람이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자존의식, 남의 간섭을 배격하는 독립정신을 가진다. 둘째, 세계를 읽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자신, 자신을 둘러싼 환경,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읽는 힘이 넓고 깊을수록, 그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이 보이고 힘이 생

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촘촘한 미시의 세계, 지나간 과거의 세계, 자연이 움직이는 법칙,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 등 시공과 그것을 넘어 존재하는 모든 구체적, 추상적 존재에 대한 이해는 읽는 힘에 달렸다. 셋째, 변화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변화를 이끌면 새로운 흐름의 주역이 되므로 자신의 처한 상황과 한계를 알고, 불가항력의 변화에는 가급적 유리하게 적응하고, 남다른 창의력을 발휘해 변화를 이끌어간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미래 세계에서 변화에 내몰리지 않고 변화와 더불어 변화의 혜택을 누리고, 그 변화가 더 좋은 쪽으로 움직이도록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있어 시행착오와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적인 사람이다. 넷째,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상상하고, 그러한 세계를 향하여 자기노력을 일평생 꾸준히 기울이는 사람이다. 유희리를 떠나 옳은 것, 참된 것, 아름다운 것, 이웃과 함께하는 것, 삶의 의미를 더하게 하는 것, 덧없다고 느낄 수 있는 한계 지어진 인간 삶을 초월하여 동경할만한 것 등 자기 삶의 근본을 성찰하고 내면의 자기를 보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일상생활, 예술, 자기의 전공분야 등 삶의 현장에서 표현하는 사람이다. 다섯째, 일을 즐겁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우리 각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로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생업을 위해서 자기 일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날의 사회 구조에서 보면 수준 높은 직업정신과 전문적인 직무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하고 연구자의 견해를 곁들여서 인재상을 서술한다면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을 지닌 인재, 창의적 사고능력을 지닌 인재,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한 인재, 정보탐색 및 정보평가 능력을 지닌 인재,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을 지닌 인재, 창작 마인드를 지닌 융·복합형 인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지닌 인재,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지닌 인재, 자기관리와 자기개발 능력을 지닌 인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D. 학교상담의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미래사회의 변화 전망,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 전망 그리고 미래사회의 인재상에 비추어 볼 때 학교상담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교육적·발달지향적 상담의 추구이다. 학교 밖의 심리상담센터 및 시설개업상담센터의 경우 대부분 문제 해결적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상담은 내담자의 호소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활동이다. 그

러나 학교상담은 보다 교육 지향적이고 발달 지향적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시적 상담보다는 조력적 상담을 지향하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상담분야에서는 비지시적 상담 혹은 내담자중심 상담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이론에서는 내담자가 스스로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해결책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존재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학교장면에서는 한정된 수의 상담자(교사)가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하다 보니 단기적이고 해결중심적인 상담을 펼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인지적 능력의 발달에 한계가 있고, 미래 조망능력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보다 주도성을 가지고 지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지시적 상담으로 일관할 경우 학생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모색이나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음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과정에서 과제 부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과제 부여는 상담과정과 상담성과에 매우 유용한 개입전략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해결중심 단기상담, 인지행동상담 등에서는 과제부여가 상담과 지도의 중요한 개입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학교상담 과정에서 학생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많은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생활하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한 하지만, 그에 더하여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측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미래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상상하다보면 현재를 돌이켜보게 된다. 이러한 것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되고 갈등과 유혹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러한 기법의 예로 진로상담에서 가끔 활용되고 있는 예로 생애곡선 그리기, 생애진로무지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교상담에서 커버 가능한 직업기초능력 함양에 대한 인식 제고이다. 직업기초능력은 현재의 근로자에게도 필요하고 미래의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이제 불필요한 스펙이 아닌 'NCS 기반 채용'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직업기초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상담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직업기초능력의 싹을 길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직업기초능력의 내용 10가지 중에서 상당 부분은 학교상담에서 커버하기에 매우 유리한 것들이다. 예컨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직업윤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섯째, 정보탐색 및 정보평가 능력 교육이다. 학교상담 특히 학교진로상담 과정에서는 정보탐색이 매우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탐색할 정보에는 직업정보, 교육정보, 직업능력개발정보, 자격정보 등이 있다. 상담과 지도의 초기에는 학교상담전문가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지만, 학생이 계속 수동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은 자기 스스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해당 정보를 어느 곳에서 찾아야 하는지 공인력 있는 출처를 알고 있고, 그 곳에서 찾은 정보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상담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글로벌 사례 제시 활성화이다. 학교상담에서 학생이 호소하는 고민 혹은 진로목표에 대한 갈등 등과 관련해서 이전에 상담했던 유사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에게는 유사사례의 주인공이 잠재적인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신과 유사한 고민을 가졌던 사람이 내담자가 희망하는 분야로 진출한 사례를 접하면서 자기효능감이 증진될 수도 있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를 제시할 경우, 모교 선배나 국내 청소년 사례만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글로벌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도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덟째, 학생의 참여로 미래 직업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실시할 때 미래 유망 직업을 소개하곤 한다. 그런데 미래학자라 할지라도 유망 직업은 예측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안목으로 미래의 세대에게 유망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학생들이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미래유망 직업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스스로 상상하고 만들어어나가는 과정이 보다 교육적으로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업의 과거와 현재의 변천사를 바탕으로 미래에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직업이 생겨나고 유망할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로지도와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홉째, 진로성숙도를 함양시키는 진로상담이라는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장면에서의 진로지도와 상담은 주로 학생의 특성(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이나 학과를 연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은 진로미결정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거나 무엇인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강박적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따라서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진로에 대한 태도, 가치, 의사결정능력 등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진로상담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진로상담 과정에서 창작 마인드를 고려하는 것이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교 진로상담의 방

향은 창작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미래에는 기존의 많은 직업들이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계화와 자동화가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에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새로운 직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업세계의 변화는 빠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모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 및 결정하는 진로상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진로상담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열한번째, 적응유연성을 개발하는 학교 진로상담을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진로상담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미래에는 평생직장은 사라지고 유연한 근무형태의 확산이 예상된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을 제외한 단순한 일들은 더욱 더 기계에게 맡기거나 임시직, 계약직을 채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언제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던 과거에 비해 일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 침투해 들어오는 경우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므로 작업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진로지도와 상담이 필요하다. 열두번째, 일·학습·여가의 균형을 유도하는 학교 진로상담을 하는 것이다. 이제 학교에서 청소년기 때부터 일생에 걸쳐 자신의 일, 학습, 여가의 균형을 맞추도록 이끌어주는 진로지도와 상담이 필요하다. 미래에는 어느 일정 시기에만 교육을 받아서 취업하고 은퇴 후 주로 여가생활을 하는 과거와 같은 방식이 사라질 것이다.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일, 학습, 여가에 참여하는 현상이 보편화될 것이므로 삶의 균형감을 키워주는 지도와 상담이 필요하다. 미래는 고소득이나 사회적 명성보다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직업이 높게 평가받게 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 학습, 여가의 균형 유지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열세번째, 자기주도적인 경력개발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다. 학교 진로상담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인 경력개발 역량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와 개입이 요구된다. 미래로 갈수록 직장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키워나가기 보다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하여야 하는 시대이므로 기업, 국경에 경계를 두지 않는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감소가 분명해질 미래사회에 있어서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과 커리어 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III. 결론

이상에서 미래사회의 변화와 직업세계의 변화 전망을 살펴보고,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상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상담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보았다.

이러한 것들이 일선 학교에서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상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의 교사 역할에 대한 이해, 교사가 직접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 학생들의 생애설계를 돕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과와 연계된 진로교육 진행이 더욱 내실화 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진로교육은 진로교과, 진로의 날,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과 분절되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특성상 교과와 분리된 교육내용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수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로와 연관시킬 수 있는 교과 교육내용에 진로에 대한 부분을 보다 지혜롭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생의 진로발달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진로교육도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진로교육과 관련된 현재의 교육프로그램들은 학습능력이 비교적 양호하거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촉진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 또는 진로발달 수준이 낮거나 전형적인 진로 및 직업에는 관심이 낮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교과수업과 마찬가지로 진로교육도 학생의 발달수준이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카운슬러협회 연차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2015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참고문헌

- [1] B. S. Kwak, "Future society's talent and direction of new curriculum," Conference Catalog, 13-30,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14.
- [2] C. H. Kim, J. I. Cho, B. J. Kim, Y. C. Kim, J. H. Park, Y. Lee, M. L. Chang, C. B. Ju, H. J. Hong, H. H. Youn, and S. H. Cha, "Long term vision of national education: education vision and strategy for the next 10 year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R2011-106, 2011.
- [3] T. H. Kim, S. A. Hong, J. S. Ju, K. S. Lee, S. E. Lee, and J. M. Jo,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work by working typ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0.
- [4] H. K. Kim, "Points of flow human resource management," *LG Weekly Economic Management Information*, vol. 653, pp. 38-43, 2001.
- [5] J. H. Nam, "Career and life cycle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Random House Central, 2014.
- [6] Y. S. Park, "Future forecast report," Random House Central, 2014.
- [7] D. Y. Son, and T. Y. Kang, "The importance of future combined education and future talent," *Mechanical Journal*, vol. 55, no. 1, pp. 32-35, January 2015.
- [8] S. H. Oh, *Manipulation theory*, Pakyoungsa, 2009.
- [9] H. S. Oh and Y. M. Choi, "Recent trends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rough ASTD," *Research on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vol. 12, no. 1, pp. 49-73, 2009.
- [10] M. K. Lee, "Korea's talent for future change," Korea Research Institut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4.
- [11] S. T. Lee, "Science and engineering concert for teen," Dream, 2016.
- [12] J. H. Chang, "Future forecast of career life,"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6, no. 2, pp. 1-19, 2014.
- [13] Jinhanbook, "Histo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Korea," Jinhanbook, 2012.
- [14] H. J. Hong, "An empirical study on job pattern changes due to IT,"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 [15] M. B. Arthur, and D. M. Rousseau (Eds), "The boundary-less career: a new employment principle for a new organizational er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16] J. P. Briscoe and D. T. Hall, "The interplay of boundary-less and protean careers: combination and implic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69, issue 1, pp. 4-18, August 2006.
- [17] D. T. Hall, "The protean career: A quarter-century journe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65, issue 1, pp. 1-13, August 2004.
- [18] C. Handy, *The Empty Raincoat: Making Sense of the Future*, New York: Random House Inc., 2001.



김 봉 환 (Bong-whan Kim)_정회원

1985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2005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상담교육, 직업능력개발